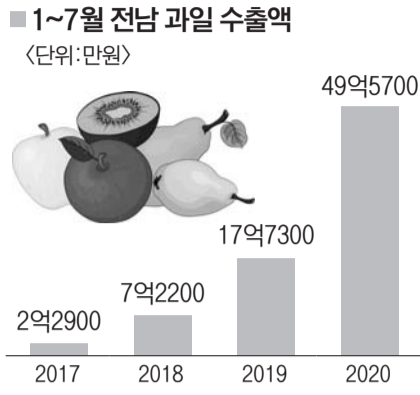


# ‘판로 감소’ 전남 과일...해외서 답 찾다

### 전남농협 을 50억 과일 수출...전년비 179.6% 32억원 증가 딸기·매실 등 합세 ‘오매향’ 홍망고·청망고 수출 등 순항



전남산 과일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소비 위축과 학교급식 판로 급감에도 수출길을 열어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다. 23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남 과일 수출액은 49억57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179.6%(32억원) 증가했다. 최근 4년 동안 전남지역 과일 수출실적은 해마다 오르고 있다. 2017년 1~7월 수출액은 2억2900만원으로, 3년 새 22배 가량 된 셈이다. 1~7월 과일 수출액은 2017년 2억2900만원, 2018년 7억2200만원, 2019년 17억7300만원 등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

다. 올해 1~7월 가장 많은 수출액을 기록한 품목은 45억2500만원(1706t) 상당을 수출한 배이다. 배 수출액은 올해 전체 과일 수출의 91.3%를 차지하고 있다. 7개월 동안의 연도별 배 수출액은 8500만원(2017년)→2억5300만원(2018년)→13억7000만원(2019년) 등 크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 수출품목인 참다래와 단감, 귤감에 이어 딸기와 매실이 새롭게 수출 효자품목으로 떠올랐다. 배에 이어 참다래(키위)가 2억2200만원(83t)의 수출액을 기록했고, 딸기(1억

1800만원·8.4t), 귤감(6900만원·5.2t), 단감(1700만원·11.8t), 매실(540만원·1.9t) 등이 뒤를 이었다. 전남본부가 올해 처음 출범한 아열대 과일 브랜드 ‘오매향’은 전남과일 수출의 순항을 도울 예정이다. 최근에는 ‘오매향’ 브랜드를 단 영광

망고가 홍콩 수출 소식을 알렸다. 지난 19일 농협 전남본부는 영광군 염산면 망고 야농장에서 생산된 ‘오매향’ 홍망고 수출을 위한 상자를 진행했다. ‘오매향’ 홍망고는 홍콩으로 180kg 수출된 뒤 오는 9월 본격 출하하는 청망고와 함께 해외시장을 공략하게 된다. 풍부한 당도와 향으로 ‘애플망고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홍망고는 최근 광주신세계,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김석기 전남본부장은 “수입산 과일로 대표되는 망고를 전남지역에서 수출하게 돼 의미가 있다”며 “국내외 소비자에 아열대농산물의 중심지로서 전남의 이미지를 선점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aT, 농식품 수출정보 매거진 ‘지구촌 리포트’ 100호 발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해외 농식품 경향을 담아 발행하는 월간 ‘지구촌 리포트’가 최근 창간 100호를 맞았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온라인 방식으로 매달 발표하는 이 발간물은 해외 농식품 경향과 수출입 관련 화제들을 담고 있다. 제작에는 aT의 해외 14개 지사와 7개 사무소가 참여하고 있다. 주요 농식품 유통·소비현황 및 트렌드, 식품관련 규정과 제도 변동사항, 수출 유망품목 관련 해외 뉴스, 한국 농식품의 현지 수출노력과 성공사례 등이 무료로 제공된다. 이번 달 8월 100호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각국의 온라인 식품구매 및 소비패턴, 식품유통 현황, 비대면 마케팅 성공사례 등이 소개되고 있다. aT 상하이지사는 중국의 식품소비 유행을 소개하며 “빅데이터를 근거로 한 중국의 소비자 식품구매유형과 계층별 트렌드를 잘 파악해 중국 식품시장의 미래를 바라보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선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외식보다는 집밥 선호도가 높은 싱가포르의 채소, 과일 등의 신선식품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산 신선농산물의 수출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외식 식자재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시장으로의 농식품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지구촌 리포트’는 농식품수출정보 홈페이지(kati.net)에서 볼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무화과로 고추장 만들기...전남농협,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지난 20일 열린 농협 전남본부 ‘결혼이민여성 단계별 농업교육’ 참가자들이 영암 무화과로 고추장을 만들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농업인력 자원화 사업 전남지역 농촌 다문화여성 등 40여 명이 지난 20일 ‘결혼이민여성 단계별 농업교육’을 받았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결혼이민여성 단계별 농업교육’ 참가자 40여 명은 이날 영암군 금정면 신유토마을에서 멘토 여성농업인과 함께 ‘단계별 농업교육’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영암 특산물인 무화과 이해를 돕기 위한 이론교육과 무화과를 활용한 가공식품인 고추장, 발효초 등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의 협력사업으로, 과소화·노령화된 농촌에 젊은 결혼이민여성을 농업인력으로 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교육은 농업 기초이론·실습, 생활요리, 가족소통교실 등의 과정으로 진행했다. 전남본부는 1대 1 맞춤형 농업교육, 전문 농업교육, 다문화여성대학 등 한글과 문화교육, 다문화여성들이 모국을 방문할 수 있는 모국방문항공권 지원, 보육용품 지원, 다문화어린이 청소년 캠프 등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겨울대파 가격안정제대상 물량 2만8천t 확정

### 농협 전남본부 간담회 개최 재배면적 2989ha로 감소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겨울대파 가격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 채소가격안정제 대상 물량을 지난해보다 12.1% 늘린 2만 8000t으로 확정했다. 전남본부는 지난 21일 농협 진도군지부 회의실에서 2020년 겨울대파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진도군청, 진도 관내 사업 농협, 농업인 대표 등이 참석해 겨울대파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전남 겨울대파는 영광군, 진도군, 신안군이 주산지다. 올해 대파 재배의향 면적은 지난해(3273ha)보다 9% 감소한 2986ha로 전망된다. 추가적인 재배면적 감축과 함께 계약재배 참여 확대를 통한 수급안정사업 활성화로 최근 지속적인 수익성 둔화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올해 겨울대파를 대상으로 한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기간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4

월까지다. 수급안정사업은 크게 출하정지(산지폐기)와 가격차액 보전으로 나뉜다. 지난해 겨울대파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에는 신안농협, 임자농협, 서진도농협, 선진농협, 진도농협 등 5개 농협이 참여했다. 참여농협에 소속된 589개 대파농가가 2만4976t에 달하는 대파를 산지폐기하는 방식 등으로 물량조절에 나섰다. 이는 계획물량 2만3054t 보다 1922t 더 많았다. 지난해 조성된 겨울대파 수급안정사업비는 41억5100만원으로, 정부·지사체가 각 30%, 농협·농업인 각 20%를 부담해 마련됐다. 사업비의 75.7%에 달하는 31억4300만원은 대파 경작지 161ha를 대상으로 산지폐기하는 데 사용됐다. 나머지 10억8000만원은 5568t 규모 대파에 대한 가격차액을 보전하는 데 쓰였다. 김석기 전남본부장은 “올해산 양파·마늘의 산지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사례를 볼 때 수급대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적정면적 재배”라며 “겨울대파를 시작으로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간담회를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재사용 화환’ 판매자 상호·전화번호 화환 앞면에 표시

농림축산식품부는 화환산업 발전 및 화환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지난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은 생화를 다시 쓴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과 표시 방법을 담고 있다. 재사용 화환은 ‘재사용 화환’이라는 문구 아래 판매자 등의 상호, 전화번호를 적어 화환 앞면에 달아야 한다. 리본을 부착할 경우는 리본 왼쪽 상단에 적도록 했다. 온라인몰에서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도 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 옆에

나 아래에 재사용 화환임을 적어야 한다. 위반하면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외에도 시행령·시행규칙은 화환산업 관련 통계 작성과 실태조사 범위, 방법을 구체화했다. 농식품부는 5년 주기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해 화환 재배·유통·판매·소비 현황, 화환 재배농가의 경영실태, 화환산업 종사 인력, 화환 품목·국가별 수출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강형구 농협 광주본부장 ‘다 같이 동행 예금’ 광주 1호 가입

농협·지역 위한 공익기금 상품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예금상품 ‘다 같이 동행 예금’ 출시를 기념해 강형구(사진) 광주본부장이 지난 20일 광주 1호로 이 예금에 가입했다고 23일 밝혔다. 강 본부장은 이날 서광주농협을 찾아 ‘다 같이 동행 예금’에 가입했다. 이 예금은 농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기금 상품이다. 농·축협별로 최고 0.5%포인트 금리를

우대하며, 6개월 이상 3년 이내 월 단위로 100만원 이상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개인예금 일 경우, 가입자 본인의 농업자금 활용을 사유로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특별 중도해지 되는 ‘농업자금 특별중도해지 서비스’가 적용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